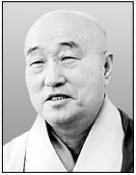


알주문



생명나눔 소명교육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은 6월 11~12일 법륜사 교육관에서 교계 복지현장가를 대상으로 소명교육을 실시한다. (02)734-80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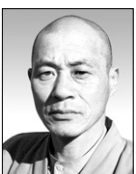
법주사 삼천대불 봉안식
법주사 주지 노현 스님은 6월 8일 법주사 경내에서 삼천대불 봉안 및 미륵대불 개금불사를 봉행했다.



법흥사 약사여래불 점안법회
법흥사 주지 도완 스님은 7월 19일 법흥사 제2보궁에서 약사여래불 점안법회를 봉행한다. (033)374-9177



백고좌법회 회향 보살계 수계법회
대구 법랑사 주지 실상 스님은 6월 11일 해인사 율주 종진 스님을 계사로 백고좌법회 회향 보살계 수계법회를 봉행한다. (053)766-3747



낙동강 수륙고혼 방생 천도법회
대구 달성 무심사 주지 무심 스님은 5월 30일 사부대중 3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산사음악회와 함께, 제2차 낙동강 수륙고혼 방생 천도법회를 열었다.



회당학원 개방이사 효심 정사 선임
진각종 행원심인당 주교 효심 정사는 5월 22일 회당학원 제377회 임시이사회에서 개방이사에 선임됐다.



금강대, 파구불대와 학술교류협정
전태종립 금강대 성낙승 총장은 6월 2일 타이완(臺灣) 파구(法鼓)대학교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했다.

도와주세요 재생불량성 빈혈, 유나

초등학교 4학년인 유나는 2001년 재생불량성빈혈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멍도 잘 들고 코피도 자주 쏟아내며 여는 아이들처럼 맘껏 뛰어놀지 못한다. 유나는 조혈세포이식을 받아야 하는데 다행히도 유나와 맞는 유전자 조직형을 가진 조혈세포기증희망등록자가 우리나라에 7명이 된다고 한다. 하지만 기쁜 소식도 잠깐. 기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치료비만 4000만원 이상 든다. 생체세포 70만원과 임파의 수입 50만원으로 간신히 생활하는 유나네 가족에겐 버겁기만 하다. (02)734-8050 후원계좌 : 농협 053-01-243778 (예금주:생명나눔) 이나은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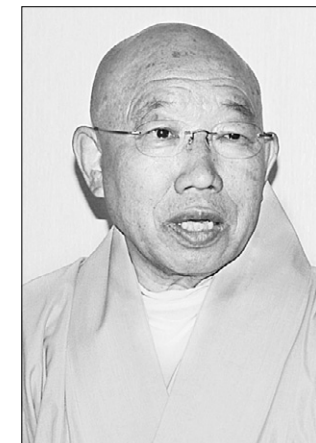
“한국불교 1번지 위상 다지기에 총력”

취임 1주년 맞은 조계사 주지 세민 스님

“조계사 부채 74억원 중 지난 1년간 38억원을 상환했습니다. 불자들이 이해와 성원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취임 1주년을 맞은 조계사 주지 세민 스님(사진)이 6월 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1년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사찰운영 계획을 밝혔다.
“조계사 주지로 부임할 당시 부채부채와 불사 등으로 적체된 부채로 사찰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총무원장 스님의 간곡한 당부도 있어 재임 중 부채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추진해왔습니다.”
취임 후 스님은 49재를 일곱 번 지내는 343일 조상천도법회를

봉행해 사중부채 해결에 총력을 기울였다. 조계사가 영가장사를 한다는 비판도 거셴다.
세민 스님은 먼저 신도들에게 양해를 구했다. 스님은 “영가전도는 죽은 이만 위하는 게 아니다. 재를 올리는 과정에서 산 사람도 염불 등으로 수행하고, 마음가짐을 달리하는 등 큰 공부가 된다”며 “토지 매입 등으로 사중부채가 많다. 이것부터 해결하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스님의 간절한 원력에 신도들도 마음을 보탤었다.
지난 1년간 조계사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343일 조상천도법회 등으로 도량에는 하루종일 기도와 염불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2010년 조계사 창건100주년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8각10층 부처님사리탑 조성불사와 사적비 건립불사가 추진돼 7월 중 회향을 앞두고 있다.
작년 한해 불자들의 평상심을 뒤흔들었던 종교편향문제를 비롯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등 대사회적인 문제와 종단의 각종 범죄와 행사 등 굵직굵직한 현안이 있을 때마다 ‘한국불교 1번지’에 걸맞은 위상을 갖춰왔다.
현재 조계사에는 대웅전 1700위 영구위폐불안 불사가 진행중이다.
6월 5일 1차 343일 조상천도법회 회향에 이어 7월 17일부터는 2차 343일 조상천도법회도 봉행된다.
세민 스님은 “1차 법회산림 천



도법회에 이어 2차 천도법회는 화엄산림이 봉행된다”고 말했다.
스님은 “취임인사에서 사부대중에 밝힌 약속을 지키려 최선을 다해왔다. 지난 1년만큼 앞으로의 1년도 조계사의 안정과 위상 제고를 위해 정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조동섭 기자

동성 스님 자비나눔 기금 삼천만원 전달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장 동성 스님은 6월 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집결실에서 공익법인 아름다운행(이상장)에 불교신문사 50주년 선화전 수익금 3000만원을 자비나눔 기금으로 전달했다. 노덕현 기자

목인갤러리서 원담 스님 전시회전 개최



수석사 서울 포교당 대륜사주지 일면은 6월 3-9일 서울 목인갤러리에서 원담 스님 추모주기 기념 전시회전을 개최했다. 4일 기념식에 수석사주지 홍산 스님, 환희대 월성 스님, 동국대 김재일 교수 등이 참석했다. 김성우 기자

조계사 청년회 창립 32주년 체육대회



조계사청년회(회장 김명선)는 5월 31일 서울교육동초에서 창립32주년 기념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300여 회원과 가족들은 축구, 발구 등 다양한 경기를 통해 화합의 장을 펼쳤다. 이상언 기자

영산재보존회 노前 대통령 위한 진혼제 올려



성각 스님을 비롯한 태고종 영산재보존회 스님들은 5월 31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시민문화관에서 故 노무현 前 대통령의 원혼을 달래는 진혼제를 올렸다. 시민 3000여 명이 고인의 넋을 기렸다. 노덕현 기자

이병욱 환경차관 운문사서 ‘녹색성장’ 강연



환경부 이병욱 차관은 6월 4일 청도 운문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가는 길이란 주제로 강연을 가졌다. 이날 운문사 주지 진성 스님, 대구 지방환경청 이삼팔 청장 등 스님 200여 명이 운문사생태보전을 논했다. 송범현 대구지사장

“어르신 요구 맞춰 발전해야”

서울노인복지센터 제4대 관장 가섭 스님

“어르신들이 원하는 것은 기존의 것과는 다릅니다. 그들의 요구에 맞춰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겠습니다”
6월 1일 서울노인복지센터에 가섭 스님(사진)이 제4대 관장으로 취임하면서 소감을 밝혔다.
스님은 “서울노인복지센터가 노인복지의 중심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책임이 매우 막중하다”며 “기존에 서울시와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인 실버문화벨트 구축에 관한 여러 가지 준비들을 착실하게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연계해 진행하는 실버문화벨트 사업은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허리우드 극장, 탑골·종묘공원에 이르는 지역에 마련되는 것으로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비롯, 각종 문제를 의논할 수 있는 상담센터,



여가를 보낼 수 있는 공간 등이 형성된다.
가섭 스님은 “고령화사회를 살고 있는 노인들의 욕구에 맞춰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하드웨어적인 면에서도 복지 프로그램을 한 단계 발전시켜야 할 것”이라며 “일문 스님이 일궈놓은 실버문화벨트 사업장에 힘 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경기 광주 불국사 주지인 가섭 스님은 2005년 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을 수료 후 서울구치소 교화위원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나은 기자

“자비행 만이 불교 살립니다”

광진구민대상 수상 법경 스님

“희생 없는 보상은 없습니니다. 대가 없는 자비행 만이 불교를 살립니다.”
6월 1일 ‘제14회 광진구민대상’ 사회복지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한 법경 스님(사진)은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지역 이웃을 돌보아야 한다”며 수상 소감을 대신했다.
40만 지역주민의 모범이 되는 광진인에게 주어지는 이상을 스님이 수상하게 된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스님은 해마다 양로원, 경로모, 소년소녀가장 등에 쌀 500포대를 보내왔다. 1988년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보낸 쌀은 만 포대를 넘는다. 겨울에는 지역의 어려운 이들을 위해 승려로서 연탄 배달 등도 마다하지 않았다.
강산이 두 번 바뀐다는 20년 세월에도 지속된 스님의 발심은 어떤 연유일까.
스님은 “1986년 능인정사 개원 전에 폐결핵 4기 판정을 받고 많이 아팠다. 그 힘든 고비를 넘기며 등체대비가 와 달았다”고 밝혔다.
스님은 이후 절 불사보다 어려



운 이웃들에게 나섰 다. 능인정사는 작은 포교당에 불과하지만 광진구민의 마음에는 으뜸가는 사찰이다.
큰 병을 앓았던 스님은 2005년부터는 건국대병원 불교법당 지도법사를 맡아 환우들에게도 자비를 실천하고 있다. 능인정사 새벽 예불 후 스님은 아침 7시부터 병원에서 가 중환자실 등을 돌며 환자들의 마음병까지 어루만지고 있다. 이러한 스님의 노력으로 능인정사는 1995년 성동구민대상과 2004년 서울시 봉사대상 등도 수상했다.
신도들에게 수상의 영광을 돌린 스님은 “어려운 이웃이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이 진정한 포교”라고 재차 강조했다.
스님이 받은 사회복지 대상과 더불어 이 날 오후 능인정사 신도 8명이 광진구청장 표창을 받아 기쁨을 더했다.
노덕현 기자

인사
조계종 총무원장은 6월 2일 호법과장에 호법부 상임감찰법상 스님을, 불교신문 편집국장(권한대행)에 김선주 인터넷기획팀장을 각각 임명했다.

Advertisement for 'Daehanbulgyo Seonmiljong' (대한불교 선밀종) featuring 'Jongdo Mochip' (종도모집) and 'Annae' (안내). It includes details about a 6-week course, a special lecture,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organization.